

오피니언

다산포럼

이남주



지난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중국이 북한을 자신의 안보에 대한 부담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확산돼 왔다.

지난 9월 다이빙귀 국무위원이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원자바오의 방문은 최근 양국 사이의 균형을 완전히 붕괴했다.

전 중 사망한 중국인들의 공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원자바오의 평양 방문은 북한에 대한 제재국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중 관계가 이처럼 강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쉽게 단절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다.

北·中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수출을 막기 위한 유연의 제재결의의 지킬 것을 공언하고 있지만, 제재를 북한에 대한 고압을 강화시켜 핵 포기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삼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첫째, 북·중 관계가 이처럼 강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쉽게 단절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다.

일 종파사건에서 소련과는 물론이고 중국의 연안과를 모두 쫓아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이후에도 중국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왔다.

둘째,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으로 부담으로만 생각한다는 오해이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직후 중국의 반응을 보면 이런 오해가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중 관계가 과거의 동지적 관계로 돌아가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쉽게 단절되거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셋째, 중국은 대외적으로 현실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오해이다. 하지만 이념이나 규범적 요소가 북·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자위언라이(周自來)가 1954년 제시한 영토 및 주권 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 등의 내용을 담은 '평화공존 5원칙'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중 관계가 과거의 동지적 관계로 돌아가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쉽게 단절되거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 제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한반도 문제의 관련국들이 제재를 위한 제재에만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대화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숨방망이 처벌'이 공무원 비리 키운다

광주·전남지역 공직사회의 부패상이 심각하다. 최근 지역 공무원이 잇따라 업무와 관련해 검은 돈을 챙기다 적발된 것이다.

전남도의 공직감찰 담당 사무관이 지난 10월 업무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공무원들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의 자체 감찰 비리 사례를 모아놓은 자료만 보아도 공직사회에 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소금 산업법' 명품 천일염 양산계기로

천일염 육성의 전기가 마련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소금 제조·가공 분야 지원을 위한 '소금산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소금산업법은 식품으로서의 위생, 품질 관리나 산업적 육성 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천일염 육성의 전기가 마련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소금 제조·가공 분야 지원을 위한 '소금산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타내는 등 형세를 촉했다. 뿐만 아니라 고리대급업을 하는 공무원, 공용차 기를 개인차에 사용한 공무원 등 온갖 수법의 비리가 자행되고 있다.

공직사회의 청렴 없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 선진국 진입은 한낱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의 청렴 없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 선진국 진입은 한낱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노벨상 시비

이스라엘 전 총리, 야세르 아라파트 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 등을 꼽았다.

이 잡지는 논란 대상자로 엘리후 루트 전 미국 국무장관과 우르도 윌슨 전 미국 대통령, 레온 부르조아 국제연맹 전의장,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메니엘 베긴

無等鼓

상(賞)은 가끔 시비를 부른다. 수상자가 상을 받았지만 충분한 자격을 갖춰느냐를 놓고 따지는 것이다.

재미 9개월 만에 노벨 평화상을 거머쥔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오바마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갈리자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9일 역대 논란을 불러온 수상자 7명을 선정했다.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 잡지는 논란 대상자로 엘리후 루트 전 미국 국무장관과 우르도 윌슨 전 미국 대통령, 레온 부르조아 국제연맹 전의장,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메니엘 베긴

수상 결정이 그리 게 운치는 없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확고한 상징성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오바마가 추진해온 지구촌의 비핵화나 이슬람 권과의 대화가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말의 희망 상 수상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갈리자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9일 역대 논란을 불러온 수상자 7명을 선정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전 주연

자동차등록대수 1천700만대 시대. 자동차는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리과정이나 세금납부 안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이메일이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시스템으로 지난 6·15일에 본격 가동이 되었다.

불법주정차 단속 SMS로 알립니다

를 주는지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규정에 얽매어 단속에만 열을 올린다고 거세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 서구에서는 이를 개선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크게 줄였다. 단속에 앞서 휴대전화로 통해 주정차 위반 사실을 미리 문자로 알려 주는 것이다.

이제 자동차는 도시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복잡한 도심생활에서 자동차와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질서를 잘 지키려는 주민들의 의식이 바로 서야 한다.

선진시민의식 고취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가 앞으로 많은 기여를 하게 됐으면 좋겠고 행정의 고객인 주민들에게는 보다 큰 감동을 안겨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서구청장〉

찜질방 옷·수건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최근에 찜질방에 갔는데 찜질방에서 주는 옷의 바지 주머니에서 누런 면봉과 누른가 가 짙은 발톱이었다.

찜질방이나 수건이 흰색이면 세탁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기 쉬우니 당국에서 찜질방과 수건 등은 반드시 흰색으로만 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윤용덕·광주시 서구 덕흥동

기고



김수공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에 국가감사로 제출한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농산물 산지조직과 불공정 거래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30건이나 적발됐다고 한다.

이들 업체들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어놓았다는 아예 거래중단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면 할인행사 강요, 거래중단 압박, PB(유통업체 자사브랜드)상품 납품강요, 대금결제 지연, 사은행사 비용부담 전가, 저가납품 강요, 부당한 비용부담 중용 등 다양하다.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판매별 영업 인은 없다. 이는 필자가 농협의 전남 농산물 산지유통을 총괄하는 농협전남지역본부 경제본부부장 시절에 경험적이 다.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유감

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지원받고도 산지 농업인들을 울린 셈이다.

어쩌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소비자 유통업체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정 책적인 오류일지도 모른다.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판매별 영업 인은 없다. 이는 필자가 농협의 전남 농산물 산지유통을 총괄하는 농협전남지역본부 경제본부부장 시절에 경험적이 다.

〈농협중앙회 구례교육원장〉

무심코 들고온 식당 젓가락... 알고보면 도둑질

며칠 전 베트남 쌀국수집 식당에 갔더니 젓가락이 우리가 흔히 쓰는 것과 좀 달랐다.

그런데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주부가 그 젓가락 한 쌍을 참여쁘다며 슬그머니 자기 가방에 넣어 넣는 게 아닌가. 자기와 같이 앉은 다른 아줌마들은 아예 "하나가지

고 되겠어? 두 개는 있어야지"라며 깔깔거리며 부추겼다.

▲이조아·광주시 광산구 송치동

Table with 4 columns: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대표전화, 편집국내, 편집국외, 정제부, 경제부, 사회1부, 사회2부, 경명지원국, 광고매케팅국, 정제부, 경제부, 사회1부, 사회2부, 경명지원국, 광고매케팅국, 정제부, 경제부, 사회1부, 사회2부